

광주연극제 대변신

내달 3~9일 개최... 올해부터 창작 초연극만 경연 참여

지역 연극인들의 축제, 광주연극제가 새롭게 변신한 모습으로 관객을 찾아온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는 극단 경쟁력 강화와 연극 관객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경연 방식을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를 줬다.

4월 3일~9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24회 광주연극제에는 모두 5개 극단이 참여했다. 최우수상 수상팀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참여한다.

◇창작 초연극만 참여, 희곡상 신설

가장 눈에 띄는 건 창작 초연극만 경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지역 극단들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국 14개 시도 중 부산에 이어 두번째 도입했다. 극단 입장에서는 창작극을 제작하는 게 다소 버겁지만 의외로 호응이 높아 5개 극단이 참여했다.

시상 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희곡상을 신설, 현재의 국회극작가협회에 심사를 의뢰해 문 상했다. 협회측은 우수 창작희곡을 선별, 희곡작품집 발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개인상은 남녀·신인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던 것을 연기상(2명)으로 통합하고 연출 등 여타 분야 개인상을 폐지한 대신 '예비상제'를 도입, 경연에

개막식 각 극단별 쇼케이스 진행

희곡상 신설 등 시상체계도 손질

개막식 관객 무료 관람권 증정

서 두각을 나타낸 부문에 상을 수상한다. 심사 역시 참가 극단 추천인 5명과 협회 추천 3명 등 모두 8명이 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에 무게를 줬다.

개·폐막식도 색다르게 준비했다. 3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5개 극단의 쇼케이스가 열리며 풍물연희에 출연 '광대'가 개막 공연을 진행한다. 개막식 참여 관객에게는 연극제 기간 중 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초대권을 지급한다.

또 9일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극단 진달래 피네의 뮤지컬 '사랑이란...'이 특별 공연을 갖는다.

◇다양한 경연 참가작

극단 청춘(4월 4일)은 원광연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은 '제비집'을 무대에 올린다. 화순읍에 자리한 가게 '중앙상회'를 배경으로 중앙상회 주인 영숙 아범, 그녀를 마음에 둔 훈아비 오씨 등 다양한 주인공들이



폐막 축하공연 진달래 피네의 '러브 이스'

등장,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전한다.

극단 C/D(5일)는 '금급용의 택시 일지'를 무대에 올린다. 고려산의 희곡으로 이행원씨가 연출을 맡았다. 취객을 도와줬다 오히려 그를 때린 혐의로 파출소로 연행되고, 지갑을 훔친 범인으로까지 몰린 소시민 택시기사 금급용의 고단한 하루를 그린 작품이다.

극단 '얼·아리'(6일)의 '별이 반짝이는 밤에'는 뉴타운 건설로 철거 위기에 놓인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죽음과 홀로 남겨져 보육원에 살게 된 소녀를 주인공으로 사회의 이픔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극단 대표 양태환이 희곡을 쓰고 양정인씨가 연출을 맡았다.

극단 UP(7일)는 뮤지컬 '별'을 무대에 올린다. 사랑하는 이를 두고 별이 된 여인, 함께 가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별 등 각각의 사연을 가진 별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으로 극단 대표 김군형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았다.

푸른연극마을(8일)은 소설가 임철우의 '사령역'을 무대에 올린다. 남쪽도시에서 벌어진 어린이실종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다. 연출은 오성환씨.티켓 가격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원. 헌혈증 제시하면 무료관람.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카레

'샘터' 40주년이 특별한 이유

"난 절대로 이 얘기가 공색하게는 키우지 않을 것이다. 샘, 맹세한다 맹세해. 나도 남들처럼 피아노를 배우게 할 것이다. 남들처럼 어린이 합창단에도 잡아 넣어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두고 바라, 샘. 맹세한다."(제1회 '아기'에서)

'별들의 고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청년 작가 최인호는 월간지 '샘터'에 새 동지를 틀었다. 1975년 9월, 그의 나이 스물아홉 살 때였다. 작가는 자신의 실제 생활을 모델로 연작소설 '가족'을 연재했다. 아내 '황정숙'은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달에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예쁘지 않으면 어떻게 데리고 살겠는 가마는 결혼을 하고 나니 사는 게 시들시들해지고 탄력성을 잃어가고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밟다 신하품이..."라고 아내의 속을 긁는 가 하면 어떤 달에는 "나는 아내의 잔소리를 좋아한다"고 답살멘트를 날렸다.

매일 그가 맛깔스럽게 풀어낸 이야기는 마치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처럼 재미가 쏠쏠했다. 독자들은 '가족'을 통해 '다혜'와 '도단'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도 지켜봤다. 해를 거듭하면서 최씨의 딸과 아들이 진짜 자신들의 '분신'인 것 같은 일체감을 느꼈다. 비록 원고지 20매 내외의 짧막한 에피소드였지만 내밀한 모습을 알기 쓰듯 진솔하게 그려내 그 어떤 장편 소설 못지 않은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35년 전 철없던 초보아빠 최씨는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겼다. 네 살짜리 큰딸 다혜와 두 살배기 아들 도단이는 결혼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두 손녀 정원아와 윤정아도 '가족'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다.

소설은 2009년 10월 최씨가 건강상 이유로 연재를 마감하기까지 무려 34년 동안 402회가 실렸다. 200자 원고지 8천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지난 11일 입적한 법정스님 역시 최씨 못지 않은 따뜻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감성을 적셨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 '고사순례(古寺巡禮)'를,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산방한담(山房閑談)'을 120여 개월간 연재해 각박한 세태에 청량제 역할을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교양지'를 표방한 월간지 '샘터'가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70년 4월 창간 때 샘터가 내세운 키워드는 '행복'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거짓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글에는 감동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금처럼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았던 시절, '샘터'가 터를 잡자마자 자신의 글 한 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이 밀려들었다. 미국에 이민 간 교포, 독일에 파견 간 공무원과 간호사들은 이역만리의 애환을 편지로 보내왔다. '특별한 것도 없는' 이웃들의 이야기에 독자들은 울고 웃었다. '샘터'는 삭막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준 오아시스였다.

최근 '조인트'니 '현모양처'니 일부 여론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막말과 독설이 난무하는 요즘, 여론과 감동을 주는 말과 글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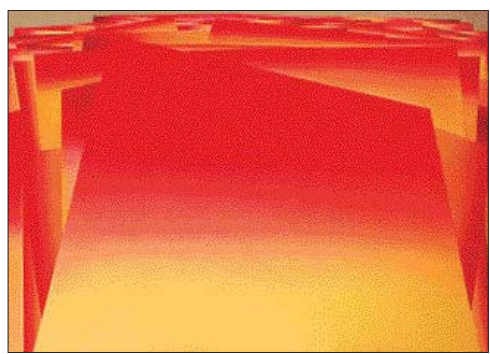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한국대표화가 '363인전' 열린다

서울 선화랑 개관 33주년 작가전

내달 1일~5월 7일까지

우제길·김일권 등 지역 작가 참여



우제길 작 'light 2009'

서울 유명 화랑에서 열리는 한국대표 화가 363명 전시에 우제길, 송필용씨 등 지역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서울 인사동 선화랑이 개관 33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1일~5월7일까지 원로작가 33명과 스타작가 330명의 3~10호 크기 소품 363점을 소개하는 '363인 작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오지호, 오승윤, 우제길, 송필용, 강운, 김일권, 오이량, 허진씨 등 지역 작가들과 국내 대표화인 인기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전시는 세대별 작품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렸다. 김기창, 도상봉, 오지호, 장욱진, 이응노 등 작고 작가의 작품은 현대미술의 뿌리를 느낄 수 있다.

또 김중화, 민경갑, 박서보, 서세옥, 하종현, 송수남 등 국내 화단을 이끌고 있는 원로작가들의 작품과 구자승, 김근중, 김덕용, 김병중, 이석주,

강유진, 고산금, 김은옥, 임택 등 중진 및 젊은 작가들의 작품은 한국미술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선화랑이 그동안 기획했던 각종 전시자료와 1983년부터 선미술상을 수상한 21명의 작가자료와 사갈,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전 등 세계적 거장 작품전의 전시자료도 함께 선보인다.

한편 1977년 개관한 선화랑은 전시기획을 비롯해 작가 발굴, 해외시장 개척 등에 앞장서 온 인사들의 대표 화랑이다. 문의 02-734-045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계도시2' 관객과 대화

내달 3일 광주극장

37년만에 고국 땅을 밟은 한 철학자에게 조국은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이라는 굴레를 씌웠다. 술한 우여곡절 끝에 2003년 한국을 찾았던 재독 철학자 송두를 교수의 3주일을 카메라에 담은 '경계도시 2' 개봉(4월 1일)을 앞두고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3일 오후 5시20분부터 '경계도시 1'와 '경계도시2'를 함께 상영한다. '경계도시 1'은 홍형숙 감독이 1999년부터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고국 방문이 번번이 무산된 송두를 교수의 사연을 담은 영



<홍형숙 감독>

화로 2002년 첫선을 보였다.

홍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은 '경계도시 2'는 당초 한국 땅을 밟게 된 송교수 부부의 일정을 담담히 담으려고 시작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송교수 귀국과 함께 상황이 급변하면서 서 홍감독의 카메라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광풍처럼 몰아쳤던 대한민국의 레드 콤플렉스, 진영의 고뇌, 언론의 무자비함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후 7시 영화 '경계도시2' 상영 후에는 홍형숙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대화 진행은 박규웅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는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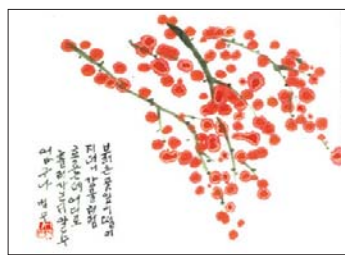
서재경 여섯번째 개인전

30일까지 광주 향토음식박물관

서예와 문인화를 선보이고 있는 범수 서재경씨가 30일까지 광주시 북구 삼각동 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여섯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춘풍탐매(春風探梅)'를 주제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서예작품과 매화 그림 등 문인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예서, 행초, 한글 등 다양한 서체를 만끽할 수



'춘매'

있고, 황동규, 조지훈 시인의 아름다운 시를 쓰고 매화 그림을 곁들인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광주서예협회 이사장인 그는 목민 전주주 선생을 사사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서예대전에서 입·특선했으며, 대한민국 서예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575-888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버이날 제주여행~

2박 3일 ₩ 250,000

무안-제주 항공권 판매

항공사	출발	도착	가격
대한항공	무안	제주	₩ 110,000
진에어	무안	제주	₩ 110,000
제주항공	무안	제주	₩ 110,000
에어서울	무안	제주	₩ 110,000
에어부산	무안	제주	₩ 110,000
에어부산	무안	제주	₩ 110,000
에어부산	무안	제주	₩ 110,000
에어부산	무안	제주	₩ 110,000
에어부산	무안	제주	₩ 110,000
에어부산	무안	제주	₩ 110,000

· 광주 MBC 문화원방

예약문의 : LAND BANK(랜드뱅크)여행사

☎062-225-6070, 225-8336 FAX 062-225-6055, 225-5070